

문화산업 회랑·첨단산업벨트 조성 등

〈문화전당~혁신도시〉 〈담양~장성~광주~함평~나주〉

광주 메트로폴리탄 윤곽

광주시 '기본구상 보고회'

광주시와 인접지역인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5개 시·군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광주 시장장이 발전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동명기술공단은 보고회에서 광역경제통합체인 '신광주 메트로폴리탄'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및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용역 팀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주·전남이 인구 급감 및 노령화지수 상승 등으로 동시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과 광주·전남의 개발계획이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광주 인접 5개 시·군의 발전이 도내 타 지역 보다 낮은 점 등을 경제통합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첨단산업벨트 구성도



이들은 특히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광주와 인접 시·군의 접근성 용이 ▲광주과기원을 비롯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 토대 구축 ▲나주혁신도시 및 무안기업을 연결하는 거점도시의 위상 제고 ▲주변지역 개발 가능 용지의 확보 용이 ▲광주와 인접 시·군의 사실상 경제 및 공동생활권 형성 등을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조성의 장점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광주·인접 시·군의 경제통합 및 연계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발굴, 공존의 도시권 개발, 환경과 개발의 조화, 광역교

통망 정비, 관광레저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 R&D(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한 뒤, 담양~장성~광주(첨단·하남·광동)~함평~나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광주·나주 인접지에 이전 공공기관인 한편과 연계효과를 높일 수 전기계산업단지 건설과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문화수도 콘셉츠 확보 차원에서 문화전당(구도심)~상무 신도시~서구 교육·문화산업단지~나주 지식 관광레저단지~나주 공동혁신지식 관광레저단지~나주 공동혁신지식 관광레저단지를 연결하는 '문화산업 회랑'을 구축, 광주와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광주 상무 신도시와 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망 등 인체 교통 체계 구축과 근교지역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이 경제권 통합 촉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랍자 19명 51일만의 귀국... "조국·국민에 큰 빛 졌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으로부터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45일, 출국 51일만인 2일 오전 대한항공 KE95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꿈에 그리던 가족들 품에 안겨 눈물의 재회를 했다. 〈관련기사 6면〉 유경식(55)씨 등 피랍자들은 지난 달 28일 이뤄진 한국 정부와 탈레반의 석방 합의에 따라 지난 달 29일과 30일 석방됐으며 31일 '안전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이동해 1박한 뒤 이달 1일 오후 9시50분(한국시간)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오전 7시에 입국장에 들어선 19명의 석방자는 여전히 수업을 꾸지 못해 초췌한 모습이었고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입국장 앞에 마련된 기자회견석 앞에 섰다.

이날 귀국한 19명 중 대표자로 나선 유씨는 소감문을 통해 "사람을 나누기 위해 왔는데 국민에게 심려를

꺼쳐드리고 정부에 부담을 주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열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조국과 국민에게 큰 빛을 졌다. 우리 모두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석고대좌해야 마땅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40여 일을 지냈고 배 목사와 심씨가 무참히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큰 충

격을 받았다"며 "안정을 취한 뒤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석방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리 대기 중인 차량을 이용해 곧장 경기도 안양시 평안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측은 정밀 검진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이들의 정신적 충격을 모두 치유하는데 최소 1~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민주신당 오늘부터 컷오프 경선

선거인단·국민 여론조사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예비 경선 결과에 따라 9명의 후보가

운데 5명이 본 경선 티켓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민주신당은 지난달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의사를 밝힌 신청자 67만5천838명 가운데 선정한 선거인단 1만명과 일반인 2천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컷오프 경선을 진행한다.

컷오프 경선에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추미애 김두관 전정배 신기남 등 9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1위 티켓을 놓고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

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손 후보는 1위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을 바탕으로 한 정동영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 정 후보 측에서는 역전도 가능하며 2위에 그쳐더라도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위 티켓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 등 친노(親盧) 그룹 지지자와 친정배, 추미애 후보 등 비노(非盧) 지지자들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신당은 오는 5일 오후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임동욱기자 tuim@

주택대출 서민들 허리 휨다

금리 8% 육박... 두달새 최고 0.56%p 폭등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7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연율 인상과 7~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풀금리 목표치 두 차례 연속 인상과 맞물려 두 달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주 목요일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3일부터는 연 5.94~7.74%를 적용한

다. 이는 7월 첫째 주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신한은행 역시 두 달 동안 최고 0.56%포인트가 올라 이번 주 연 6.28~7.68%가 적용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연 6.18~7.68%, 연 6.59~7.29%가 적용돼 같은 기간에 최고 0.46%포인트와 0.48%포인트가 올랐다.

주택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출연연율 인상분을 반영한데다, 최근 들어 기준금리인 CD 금리가 풀금리 인상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91월 CD 금리는 지난 달 31일 연 5.29%로 마감해 2001년 7월 19일(연5.29%) 이후 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로인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분할상환에 들어가는 대출자들의 경우 '상환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부 정미주씨(42·광주시 남구 진월동)는 "2년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8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거치기간이라 매달 43만3천원의 이자만

냈지만 조만간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에다 1년동안 이자 상승분 1%포인트를 더하면 매달 69만9천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4%가 변동금리 대출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은행들은 대출평균 금리가 6%대 중반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가계의 부담은 무시 못할 정도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우일대통합 정약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CATS

‘갯조’ 타겟 발매중!

2007.9.14 / 2주만 기간

문의: 033-220-4531 / 1533-0763

경북 조신대학교병원 "전문진료센터" 개원

2007년 9월 11일 화요일

전문진료센터 개원으로 고객 의료 맞춤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 심장혈관센터 / 임플란트 / 척추센터 / 알노병센터 / 관장센터 / 스포츠재활센터 / 여성건강센터 / 통합진료중심센터 / 노인건강센터